

滿文 《尸語故事》 譯註

- 滿文 《尸語故事》의 소개와 번역 -

金 洙 景*

<목 차>

1. 《尸語故事》의 기원과 전래
 - 1.1 《尸語故事》 소개
 - 1.2 《尸語故事》 작가와 창작시기
 - 1.3 滿文 《尸語故事》
2. 滿文 《尸語故事》 編譯
 - 2.1 滿文傳寫 및 對譯
 - 2.2 現代譯

1. 《尸語故事》의 기원과 전래

1.1 《尸語故事》 소개

《尸語故事—滿族佛教故事21篇》은 동아시아 민간에서 발생하여 티벳족·몽골족·만주족 사이에 전승된 이야기를 엮은 책으로 《천일야화》나 인도의 《슈카사프타티》(Śukasaptati 앵무새의 일흔 개 이야기)¹⁾, 중국의 《聊齋志異》 등과 비견되는 고사집이다.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전해진 고사에 티벳과 몽골의 민간고사들이 혼재되어있으며 전파 지역에 따라 《說不完的故事》,

* 극동대학교 강사.

1) 슈카사프타티(Śukasaptati):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설화집으로 작자·연대 미상의 작품이다. 원본은 분실되었으며 2종의 산스크리트어 사본이 전해진다.

《魔尸故事》라는 제목으로 전해지기도 한다.²⁾ 전과 지역에 따라 내용과 편폭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티벳 지역에는 《ro-dngos》³⁾이라는 제목으로, 몽골족과 만주족 사이에서는 《sidityü kegür》⁴⁾으로 전해지고 있다. 《尸語故事》의 來源은 印度 찬드라 굽타 2세(Candra Gupta II) Vikramāditya⁵⁾를 주인공으로 하는 고사집 《vetāla-pañca-vimśati》(梵語: वेतालपञ्चवशिता-바이탈 파차시)⁶⁾이다. 인도의 민간 고사에는 황제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가 적지 않은데 《vetāla-pañca-vimśati》 역시 찬드라굽타 2세의 지혜와 용맹함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 전체 고사는 총 스물다섯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큰 스토리를 중심으로 에피소드식의 이야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vetāla-pañca-vimśati》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찬드라굽타 2세는 한 출가한 사람에게 매일 보석이 들어 있는 열매를 받게 되어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 그의 부탁은 火葬場 나무에 걸려있는 시체를 祭壇으로 옮겨 달라는 것이었다. 찬드라굽타 혼자 시체를 옮기는데 갑자기 시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며 문제를 하나씩 낸다. 찬드라굽타는 매 질문마다 현명하게 대답하기를 했으나 입을 열어 말하면 모든 일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할 때마다 祭壇에 옮겨두었던 시체는 도로 나무에 가 걸린다. '시체의 질문-찬드라굽타 2세의 대답-시체가 나무로 되돌아감'과 같은

-
- 2) 《尸語故事》라는 명칭은 李朝群이 1983년 藏文本을 번역하며 제목으로 쓰기 시작했다.
- 3) 중국어로는 '若鍾' 또는 '莫若澤鐘' 이라하며 '시체의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烏力吉巴雅爾 西脇隆夫譯, <<シッディ・クール>> & 《屍語故事》> (上), 《名古屋学院大学論集 人文・自然科学篇》, 第45卷 第1号, 2008年, 35면
- 4) 중국어로는 몽골어를 음역하여 '喜地呼爾'이란 제목으로 전해진다. 烏力吉巴雅爾 西脇隆夫譯, <<シッディ・クール>> & 《屍語故事》> (上), 《名古屋学院大学論集 人文・自然科学篇》, 第45卷 第1号, 2008年, 35면
- 5) 찬드라굽타 2세: 북부 인도의 강력했던 황제(380경~415경 재위). 사무드라 굽타의 아들이며 찬드라굽타 1세의 손자이다. 강하고 용맹스런 지배자였으며 인도를 평화롭고 부유하게 만든 자비로운 왕이었다. 학문을 후원하여 궁전에 천문학자인 바라하미히라와 산스크리트 시인이며 극작가인 칼리다사 등을 머무르게 하기도 했으며 무료 요양소와 병원들을 운영하였다. 독실한 힌두교도였지만 불교와 자이나교를 용인하기도 했다.
- 6) 《vetāla-pañca-vimśati》는 악마가 Vikramaditya 왕에게 해준 스물다섯 가지 이야기로 중국에는 25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僵尸鬼故事二十五則》 또는 《僵尸鬼故事》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형식의 사건이 스물네 번 반복되고 스물다섯 번째 이야기에서야 비로소 왕이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찬드라굽타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귀신은 이렇게 한 이유를 털어놓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왕에게 접근했던 出家人이 왕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귀신이 왕을 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귀신은 왕에게 祭壇의 出家人을 죽여도 무방하다고 알려준다. 이때부터 귀신은 왕의 친구이자 조수가 된다. 《vetāla-pañca-vimṣati》는 대부분의 인도의 이야기가 그렇듯 전반적으로 찬드라굽타의 용맹함과 지혜 찬양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왕의 현명한 대답을 통해 독자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이야기는 인도 거의 전 지역에 현지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차츰 중국 티벳 지역을 중심으로 青海·四川 등 티벳족 거주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퍼지고 몽골족과 滿洲族에게 까지 전파되어 중국 민간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티벳의 敍事詩 《Гэсэр Хаан(게세르칸)》⁷⁾ 몽골의 英雄史詩 《Жаһһр(장가르)》, 및 《巴拉根倉的故事(dpāl lha kun bzang gi gтам rgyud)》⁸⁾ 등이 모두 《尸語故事》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작품이다. 《vetāla-pañca-vimṣati》는 중국내 알타이어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과 漢藏語系 언어를 사용하는 일부 민족에게 전파되어 문학창작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불교를 믿거나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에 전파되어 있다.

1.2 《尸語故事》 작가와 창작시기

《尸語故事》의 근간이 되는 《vetāla-pañca-vimṣati》의 작가가 누구지에

7) 《Гэсэр Хаан(게세르칸)》: 세계에서 가장 긴 거작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동티벳 민족 영웅설창체 서사시.

8) 巴拉根倉的故事(dpāl lha kun bzang gi gтам rgyud): 몽고와 新疆 등 몽고족 거주지에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용감하고 지혜로운 몽고족 청년인 dpāl lha kun bzang이 각종 사회모순과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李成文, 多吉才郎譯, 《巴拉根倉的故事》(dpāl lha kun bzang gi gтам rgyud), 西寧, 青海民族出版社, 1982年, 106면.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현전하는 두 종류의 서언중 하나인 티벳어본에서 Nagarjuna (龍樹菩薩)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Nagarjuna라 주장하기도 한다.⁹⁾ Nagarjuna는 3세기경 출생한 인도인으로 '제2의 석가', '8종의始祖'로 불리는 남인도의 승려이자 中觀學派의 시조로 대승불교를 창시한 사람 중 한명이다. 이 주장은 Nagarjuna가 속세의 사람들에게 법문을 전하고 일깨움을 주기 위해 《vetāla-pañca-vimśati》를 창작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른 판본의 서언에는 이 같은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약간 차이가 있어 작가를 Nagarjuna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한 인도의 여러 귀신 이야기와 불교 관련 고사 중에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눈에 띄어 한사람의 손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가에 이어 《尸語故事》가 창작된 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金克木은 《vetāla-pañca-vimśati》가 중국에 들어온 시기를 조사하였다. 《vetāla-pañca-vimśati》 가운데 일부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 《故事海》가 11세기 成書된 것으로 미루어 강시이야기들이 늦어도 11세기 이전에는 중국에 전해졌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尸語故事》가 인도의 《Pancatantra》¹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미루어 《Pancatantra》가 傳寫된 것보다는 늦은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 또 중국 민간 고사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vetāla-pañca-vimśati》가 12세기에 중아시아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그 산생시기를 고증하는데 있어 참고가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尸語故事》는 티벳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처음 전해졌다. 《尸語故事》의 티벳 지역 전파는 《柱下遺稿》, 《吐蕃王朝世系明鑒正法源流史(西藏王統記)》, 《賢

9) 藏文本 역사후기 에서 작가를 Nagarjuna라 하였다. 《尸語故事》, 班貢帕巴·魯珠著, 李朝群譯, 西藏人民出版社, 1983年, 167면.

10) 五卷書(梵文: पञ्चतन्त्र, 英文: Pancatantra) 인도의 고대 우언고사집. 산스크리트어로 쓰여 있으며 총5권이라 《五卷書》라 불린다. B.C. 1세기경 창작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우언고사와도 유사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며 유럽에서는 《The Fables of Bidpai(비드파이의 우화들)》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者喜宴》, 《清史》 등에 약 2세기 전후로 西藏山 남쪽 雅隆部落의 제8대 贊普인 布代鞏傑(spudegungrgyal)시기 《尸語故事》가 유행했다.¹¹⁾와 같은 기록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렇듯 2세기 쯤 티벳에 전파된 《尸語故事》는 티벳족에게 전해지고 몽골족·만주족에게 전파되며 오랜 시간동안 중국 북방민족 사이에 유통되며 중국 소수민족의 구미에 맞게 변형되었고 중국민간 예술인에 의한 增刪이 진행되었으며, 중국소수민족의 사상과 정서, 생활풍속, 사회상 등이 녹아들어가 중국 민간 문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尸語故事》가 藏族을 비롯한 중국 민간에 폭넓게 전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尸語故事》의 이야기 자체가 흥미진진하여 듣고 읽기 지루하지 않다는 것, 중국 민간 생활과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삶의 喜怒哀樂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 풍자적인 성격이 강하고 선에 비하는 악, 용감함에 비하는 비열함, 영웅과 대비되는 비겁자, 근검절약에 대비되는 사치허영, 협동과 조화에 대비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등이 논리적으로 대비되는 것 등이 주로 작용했을 것이다.

1.3 滿文 《尸語故事》

滿文 《尸語故事》는 원문이 滿洲語로 되어있는 총 223쪽의 필사본이다. 높이가 27.3cm, 너비 20cm의 크기이고 眼裝訂, 白口, 無魚尾의 형식으로 제본되었다. 표지는 黃色萬字雲絹으로 되어 있으며, 黃綾包角은 이미 떨어져나갔다. 開篇부분¹²⁾인 첫 페이지만 세 줄이고 나머지 페이지는 모두 세로 일곱 줄씩 필사되어 있다.

3, 40년대부터 일본학자들에 의해 《尸語故事》의 滿洲語본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으나 50여 년간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다가 얼마 전 季

11) 《清史》: 大約在二世紀前後當西藏山南地區的雅隆部落的第八代贊普布代鞏杰時期就有《尸語故事》流行

12) 開篇은 滿文本에만 있으며 藏文本과 蒙文本에는 없다.

永海에 의해 발견되어 2002年 중국어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현재 北京故宮博物院圖書館에 원본이 北京圖書館에 晒藍本¹³⁾이 소장 되어 있다.

滿文《尸語故事》 스물 한편의 고사에는 각각의 편명만 있고 書名과 서문 등은 없다. 현재 전해지는 書名은 다른 언어로 되어있는 판본을 참고해 붙인 것이다. 滿文《尸語故事》는 蒙文 21章本の 어법특징이 보이고,¹⁴⁾ 필사된 滿文字體의 특징 등으로 미루어 淸康熙·乾隆년간 쓰인 것으로 간행 시기는 늦어도 17세기 후반을 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¹⁵⁾

滿文《尸語故事》 역시 《vetāla-pañca-vimśati》와 마찬가지로 큰 틀 안에 21개의 각기 다른 주제의 짧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액자구조를 취하고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왕이 이야기를 듣고 말(대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되는 이야기들은 대체로 권선징악 인과응보 등을 주제로 하는 교훈적이 이야기들이다.¹⁶⁾ 물론 인도의 《vetāla-pañca-vimśati》와 《尸語故事》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사구조와 몇몇 고사의 줄거리 주제 등은 상당히 유사하다.

《vetāla-pañca-vimśati》와 滿文《尸語故事》의 차이는 우선 만문본에서 이야기의 개수가 3개 줄어들었다는 것¹⁷⁾, 시체를 업고 가는 것이 아니라 神을

13) 故宮圖書館에 소장된 21藏本 滿文《尸語故事》는 蒙文《尸語故事》(sidityökeker-ün domug)와 내용 목차가 완전히 일치한다. 이를 통해 滿文《尸語故事》는 몽문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季永海는 滿文《尸語故事》는 번역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蒙文《尸語故事》(sidityökeker-ün domug)를 저본으로 하였을 것이며 藏文本을 직접적으로 참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季永海, <《尸語故事》在滿族中的流傳> 《民族文學研究》, 1993, 22면.

15) 2002년 中央民族大學出版社에서 출판된 季永海 譯註 《尸語故事-滿族佛傳故事21篇》의 서문 참고.

16) 《vetāla-pañca-vimśati》는 마지막 스물다섯 번째 이야기에 왕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vetāla-pañca-vimśati》에서 스물네 번 나오는 왕의 대답은 봉건사상을 담은 지혜로운 내용으로 작가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滿文《尸語故事》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들던 왕이 부지불식간에 감탄 등을 하느라 입을 열게 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金克本, 《梵語文學史》, 人民出版社, 1964年, 224쪽.

17) 滿文本《尸語故事》는 표면적으로 21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열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쳤을 때 왕이 말을 하지 않자 신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한다. 따라서 滿文本《尸語故事》에서는 총 22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가죽주머니에 넣어서 짊어지고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스물한 번째 이야기도 왕이 입을 열고 말을 하고 있어 이야기 전체가 끝을 맺는 분위기로 마무리되어 있진 않다.

滿文 《尸語故事》의 형식상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편폭이 가장 긴 것이 1950단어 가장 짧은 것은 370단어 정도로 개별 작품 길이는 그다지 길지 않다. 滿文 《尸語故事》는 전체적으로 산문체 문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고 있는데 의사 전달을 하거나 분위기를 반전할 때, 사실성을 더하거나 이야기를 압축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대화를 적절하게 운용하며 서술과 대화의 비율을 7:3 정도로 구성하고 있다. 또 작중 인물의 심리는 대부분 독백처리하고 있어 현대 소설과 비슷한 수준의 표현 구성을 보인다. 어휘 사용에 있어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일부 몽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 번째 고사 제목인 'tühurdai' (蒙語-송아지)와 본문에 나오는 'hainuk' (蒙語-황소와 야크의 잡종), 스물한 번째 고사의 제목에 쓰인 'jiruhe' (蒙語-心臟 또는 勇氣) 등은 모두 몽골어이다. 人·地名은 šun elden i jui- '햇빛'의 아들 (햇빛이), biyai elden i jui - '달빛'의 아들 (달빛이), enteheme jirgacun ere bade - 영원하며 편안한 곳,¹⁸⁾ buyecuke sere bade - '화목한'이라는 곳, endebuhe gebungge niyalma- '실수투성이'라 불리는 사람¹⁹⁾ genggiyen i acabure han bihebi. - '명의 왕을 환영한다.'²⁰⁾ jiruhei julen - '勇氣'의 이야기라는 왕이 있었다. gebu be amba hūsungge sembi. - 이름을 '크고 힘센'이라 했다. 등등 대상의 특징을 추출해 작명하고 있다. 이 밖의 언어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록된 어휘 중 《新滿漢大辭典》이나 《滿和辭典》과 다소 차이가 있게 필사된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 어휘들은 만주 방언이거나 오래전에 쓰이던 만주어 일 가능성이 있어 단순 誤記로 보기는 어렵다. 滿文《尸語故事》와 사전과 표기가 다른 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8) 다섯 번째 이야기

19) 일곱 번째 이야기

20) 아홉 번째 이야기

滿和辭典과 滿文《尸語故事》와의 기록이 다른 어휘²¹⁾

	尸語故事	滿和辭典	뜻		尸語故事	滿和辭典	뜻	
1	toome	tome	매(每). 마다.		doombi	dombi	앉다(2회)	
	efiyembi	efimbi	놀다		bolho	bolgo	깨끗한	
	fergecuke	ferguwecuke	신기한		tolhin	tolgin	꿈	
2	garhan	gargan	다만	8	boigon	boihon	땅, 흙	
	oren	üren(eoren)	牌位		ninggunde	ninggude	위쪽	
	doombi	dombi	계산하다, 앉다		saiyun	saiyün	좋습니까?	
	niruhan	nirugan	그림		moo	miyoo	묘, 사당	
	boigon	boihon	흙, 땅		9	ejilembi	ejelembi	지배하다
3	too	to	too는 만주어육, 내용상 육설이 쓰일 곳이 아님 尺을 나타내는 to일 듯		burlambi	burulambi	도망가다	
	loosa	losa	노새		10	sambi	saimbi	물다, 씹다
	eheliyenggu	ehelinggū	무능한, 멍청한		11	tolhibumbi	tolgimbi	꿈꾸다
4	amhambi	amgambi	자다	13	bafun	bofun	보자기	
	šntuhun	šntuhuni	해지도록	15	šunnjembi	šušunggiyambi	수군거리다	
	assarambi	asarambi	간직하다		sanggū	sanggūšambi	원하다	
	fajaran	fajiran	바람벽, 바람	16	dabahan	dabagan	산길	
	giya	giyai	거리, 길		gacimbi	gajimbi	가지고 오다	
sacirambi	sacimbi	베다		yose	yoose	열쇠		
5	katujambi	katunjambi	노력하다, 견디다	18	bihan	bigan	황야, 황무지	
	ulga	ulha	가축		olgombi	olhombi	마르다	
6	yoni	yooni	전부	20	hūcin	hocin	우물	
	oombi	ombi	되다		ayu	ayo	아마도	
	kelfiyembi	kelfimbi	기울다		secembi	secimbi	갈라열다	
7	ilga	ilha	꽃	21	kunusun	kunesun	마른식량	

滿文《尸語故事》의 내용상 특징을 살펴보면 티벳어와 몽골어로 전해진 고사들의 주인공은 모두 屍體를 배신하는데 반해 滿文《尸語故事》는 神(靈丹藥

21) 표에서 소개한 어휘들을 조사해 본 결과 滿文《尸語故事》에 기록된 어휘들은 《滿和辭典》의 표기뿐 아니라 《新滿漢大辭典》, 《補訂滿洲語文語辭典》, 《滿洲語文語文典》과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神) 한명만 배신을 한다는 것, 불교고사를 고수하면서도 그 안에 菩薩敎의 요소를 더하고 있다는 것, 상당히 오래전의 만주 풍속 등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清代 한 시대만도 가늠할 수 없이 많은 滿文 문헌과 서적이 전해지지만 滿文으로 전해진 민간고사는 거의 없다. 따라서 滿文 《尸語故事》의 번역과 연구는 그 자체의 해독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 특히 중국 지역에 전파된 민간고사의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만주족과 불교문화의 관계 및 불교문화가 만주족문화에 끼친 영향연구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에서 번역된 고사는 滿文本 《尸語故事》 아홉 번째 이야기로 《尸語故事》에서는 거의 드물게 보이는 애정 고사이다. 이 이야기는 藏文·蒙文·滿文 《尸語故事》에 모두 실려 있다.²²⁾ 특이한 것은 세 언어로 된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성과 주인공, 결말은 같으나 배경과 상황 몇몇 등장인물에 차이를 보인다. 이 이야기들의 비교를 통해 유전 과정 중의 변화와 각각의 민족 특색을 살펴 볼 수 있어 滿文本 《尸語故事》 자세한 번역을 진행하였다.

2. 滿文 《尸語故事》 翻譯

2.1 滿文傳寫 및 對譯

hehe niyaman be gajifi, han be weijubuhe uyuci julen
 여자 심장을 가져와서 han 을 살려낸 아홉 번째 이야기

tereci geli nenehe songkoi genefi enduri be unufi jidere de enduri
 그로부터 또 전 대로 가서 신 을 업고 음 에 신 이야기

22) 藏文·蒙文·滿文 《尸語故事》에 실린 이야기 중 돼지샤먼의 이야기, 햇님과 달님이야기, 여자가 심장을 가져와 왕을 구한이야기, 왕이 된 비라만의 이야기 등 4개의 이야기가 제목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julen alame, emu hibsu elgin²³⁾ i bade, genggiyen i acabure han²⁴⁾
말하되 한 벌꿀 풍부한 곳에 genggiyen i acabure han
bihebi. tede wesihun sain banjija jui bihebi. tere han ama akūha
있었다. 그에게 키크고 잘 생긴 아들 있다. 그 han 아버지 죽은
manggi. jui amai soorin be sirafi, geli emu han i sargan jui
후 아이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고 또 한 han 의 딸
be sargan gaiha. tere sargan de acarakū ofi, emu bai niyalmai
을 처로 취했다. 그 처에게 맞지 않아서 한 지역 사람의
hocikon sargan jui de kemuni latuhabi. tere han akū ojoro de,
아름다운 딸에게 항상 사통하였다. 그 han 죽음에
latuha sargan jui beye de bifi²⁵⁾ biya hamika bihe.
사통한 딸 임신 해서 딸 거의 되었다.
han akū oho manggi. han i fayangga dobori biyai elden de, tere
han 죽은 후 han 의 혼 밤 달의 빛에 그
sargan jui²⁶⁾ duka de genefi, duka foriha manggi. sargan jui duka
딸(여자) 문에 가서 문 두드린 후 여자 문
neifi dengjan tukiye fi tuwaci, inde latuha han inu. sargan jui ambula
열고 등잔 들고 보니 저에게 사통한 han 이다. 여자 매우
urgunjefi gala be jafafi boode dosimbufi, nure omibuha manggi. han
기빠서 손을 잡고 집에 들게 해서 술 마시게 한 후 han
tere sargan jui be, ini boode gamame hanci isinjija manggi. tungken
그 여자를 그의 집에 데려가 가까이 도착한 후 북

23) elgin은 elgiyen으로도 쓰인다.

24) genggiyen i acabure han은 '명의 왕을 환영한다.'라는 의미이다.

25) beye de bifi: 만주어에서 beye는 '몸', de는 '~에' bi는 '있다', ~fi는 동사 뒤에 붙는 연결 어미로서 '~고'의 의미이다. 직역하면 beye de bifi는 '몸에 생겨서'라는 의미인데 내용에 따라 '임신해서'로 해석하였다.

26) sargan jui: '딸'을 가리키는 말이나, 내용에 따라 '여자'로 번역하기도 했다.

dure bileri fulgiyere jilgan be donjifi, sargan jui fonjime ainaha
 두드리고 태평소 부는 소리를 듣고 여자 묻되 무슨
 kumun ni. han hendume, si sarkūn, bi bucehe. ere mini giran de
 음악이냐? han 말하되 너 모르는구나, 나 죽었다. 이 나의 시체를
 juktere jilgan. ere sini beye de bisire sargan jui be, sufan i
 제사하는 소리이다. 이 너의 몸 에 임신한 딸 을 코끼리의
 kūwaran de banjifi. mini eniye de bufi giyan giyan i iletu ala.
 우리 에서 낳아서 나의 어머니 에게 주고 상세하고 명백하게 말하라.
 mini eniye, sargan juwe nofi, emu boobai waliyabufi eherehebi.
 나의 어머니 처 두 사람 어떤 보물 잃어서 사이가 나빠져 있다.
 tere boobai mini besergen i fejile umbuha bi. tere be tucibufi mini
 그 보물 나의 침대 의 아래 묻혀 있다. 그것 을 꺼내서 나의
 sargan de bufi ini dancan de unggī. mini eniye suweni juwe nofi,
 아내 에게 주어서 그의 친절 에 보내라. 나의 어머니 너 두 사람
 jui be ujime, mini soorin be sirabu seme hendufi edun ofi genehe.
 아이 를 길러 나의 지위 를 계승하게 하라 하고 말하고서 바람 되어 갔다.
 tere sargan jui ambula gasame farafi tuheke. aituha manggi,
 그 여자 매우 슬퍼하며 기절해 쓰러졌다. 깬 후
 ambula songome wajifi. tereci sufan i kūwaran de genefi,
 심하게 울며 마치고 그로부터 코끼리의 우리 에 가서
 tere dobori emu haha jui banjija. jai cimari sufan tuwakiyara niyalma
 그 밤 한 남자 아이 낳았다. 다음 새벽 코끼리 지키는 사람
 sabufi hendume absi koro. ainaha niyalma ubade jifi banjija ni,
 보고서 말하되 얼마나 슬픈가? 무슨 사람 이곳에 와서 낳았느냐?
 sufan i kūwaran nantuhūraha kai. tere hehe hendume
 코끼리의 우리 더러워졌구나! 그 여자 말하되
 hūwanggiyarakū. si genefi, han i eniye be ubade jio se. emu

관계없다. 너 가서 han 의 어머니 를 이곳에 오라 하라. 한
 fergecuke gisun bi. tere niyalma genefi fujin de alaha manggi. fujin
 특별한 말 한다. 그 사람 가서 부인 에게 전한 후 부인
 uthai jihe. tere hehe turgun be giyan giyan i alaha manggi. fujin enen
 바로 왔다. 그 여자 사유 를 낱낱이 말한 후 부인 후손
 akū ofi, tere jui be fergecuke seme boode gamafi gosime ujimbi.
 없어서 그 아이 를 특별하다 하여 집에 데려가서 사랑하며 키운다.
 tere hehe han i umbuha boobai be bahafi tucibuhe manggi.
 그 여자 han 의 묻은 보물 을 얻어서 낸 후
 umesi akdaha. tere boobai be han i sargan de bufi, dancan de
 매우 믿었다. 그 보물 을 han 의 처 에게 주어서 친절 에
 unggihe. tereci fujin tere hehe doro be ejilefi²⁷⁾ dasambi. tere han
 보냈다. 그로부터 부인 그 여자 정권 을 장악하고 다스린다. 그 han
 i fayangga, biya dari tofohon i dobori, tere hehei emgi dedumbi,
 의 혼 달 마다 15일 의 밤 그 여자와 함께 잔다.
 abka gereme akū ombi. tere hehe tere be, fujin de alaha manggi.
 하늘 밝아 사라진다. 그 여자 그것 을 부인 에게 말한 후
 fujin hendume, unenggi tuttu oci, si emu temgetu gaifi tuta. tereci
 부인 말하되 진실로 그러하면 너 하나 증거 잡아서 남겨라. 그로부터
 emu dobori jihe be, temgetu gaifi fujin de tuwabuha. fujin hendume,
 한 밤 음 을 증거 잡아 부인 에게 보였다. 부인 말하되
 te si meni eme jui be acabume tuwa. tere hehe tofohon i dobori,
 지금 너 우리 母子 를 만나게 하여 라. 그 여자 15 의 밤
 han i fayangga jihe manggi. han i baru hendume, ere tofohon i dobori
 han 의 혼 온 후 han 에게 말하되 이 15 의 밤

27) ejilefi는 ejelefi와 같다.

emgeri jiderengge udu sain bicibe, enteheme guculerakū ofi mini
한번 온 것 비록 좋지만 영원히 사귄 수 없어서 나의
mujilen jobombi. han hendume sini mujilen mangga oci enteheme
마음 괴롭다. han 말하되 너의 마음 강하면 영원히
guculeci ombihe. hehe niyalma de mangga mujilen akū ofi muterakū.
사귄 수 있다. 여인 에게 강한 마음 없어서 할 수 없다.
hehe hendume mangga mujilen be bi sara. ere beye han i emgi
여자 말하되 강한 마음 을 나 알겠다. 이 몸 han 의 함께
enteheme guculere oci yali meijehe. giranggi fakaha seme nakarakū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살 찢어지고, 뼈 부서진다 해도 멈추지않고
akūmbuki. han hendume, ishun biyai tofohon i dobori, biyai tucire
최선을다하자. han 말하되 다음 달 15 의 밤 달이 나올
erin de wesihun gene. emu bai dubede isinaha manggi. emu selei
때 에 동쪽으로 가라. 한 곳의 끝에 도착한 후 한 쇠의
beye sakda niyalma, wembuhe sele be omime kangkaha sembi. tede
몸 늙은 사람, 녹은 철 을 마시며 목마르다 한다. 그에게
emu kukuri arki bu. tereci casi genehe manggi. juwe buka honin
한 주전자 술 주어라. 그로부터 저리 간 후 두 솥 양
ishunde šukišambi, tede emte efen bu. tereci casi genehede,
서로 싸운다. 그에게 하나씩 떡 주어라. 그로부터 저리 감에
geren agūra jafaha niyalma be acambi. tese de emte farsi yali bu.
여러 무기 잡은 사람 을 만난다. 그들 에게 각 한 조각 고기 주어라.
tereci casi genehede emu gelecuke senggi fusuha farhūn boo bi.
그로부터 저리 감에 한 무서운 피 뿜는 어두운 방 있다.
terei dolo selei agūra jafaha emu niyalma bi. terei duka de juwe hutu
그의 안 강철의 무기 잡은 한 사람 있다. 그의 문 에 두 귀신

soncoho de senggi latufi bi. tese de emte dalgan senggi bu.
 묶음머리 에 피 붙어 있다. 그들 에게 각 한 덩이 피 주어라.
 tereci booi dolo dosika manggi, jakūn tarni hūlara niyalma šurdeme
 그로부터 방의 안 들어간 후 여덟 경 읍는 사람 둘러
 tecehebi. tesei jakade uyun niyalmai niyaman bi. jakūn fe niyaman,
 앉았다. 그들의 곁 아홉 사람의 심장 있다 여덟 오랜 심장
 mimbe gama sembi. emu ice niyaman mimbe ume gamara sembi.
 나를 가져가라 한다. 한 새 심장 나를 가져가지마라. 한다.
 si gelerakū hatarakū ice niyaman be jafafi amasi tuwarakū
 너 두려워말고 싫어하지 말고 새 심장을 잡고 뒤 보지 말고
 burlame²⁸⁾ jihede. ere jalan de enteheme emgi banjici ombikai.
 도망쳐 움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tere hehe giyan giyan i gemu ejefi, tofohon i dobori biya tucime
 그 여인 날날이 모두 기억하고 15 의 밤 달 나오자
 uthai yaya de ulhiburakū, mangga mujilen jafafi wesihun
 바로 모두 에게 알아채지 못하게, 굳은 마음 잡고 동으로
 geneme, babade bume genehei isinaha manggi. tere ice niyaman mimbe
 가서 곳곳에 주고 가면서 도착한 후 그 새 심장 나를
 gamara secibe jurcerakū jafafi burlame tucike. tarni hūlara
 가져가라 하지만 주저하지않고 잡고 도망쳐 나갔다. 경 읍는
 niyalma bošome niyaman be hūlha gamambi, dukai niyalma jafa seci.
 사람 쫓아 심장을 훔쳐 가져간다. 문지기가 잡아라 하니
 dukai niyalma ere mende senggi buhe bihe seme tucibufi unggihe.
 문지기가 이 우리에게 피 주었다 하고 나가게 해서 보냈다.
 tereci geren agūra jafaha niyalma be jafa seci, ere mende yali
 그로부터 여러 무기 잡은 사람을 잡아라 하니 이 우리에게 고기

28) burlame는 burulame로도 쓰인다.

buhe bihe seme tucibufi unggihe. tereci juwe buka honin be jafa
 주었다 하고 나가게 해서보냈다. 그로부터 두 수컷 양 을 잡아라
 seci, ere mende efen buhe bihe seme tucibufi unggihe. tereci
 하니 이 우리에게 떡 주었다 했다 하며 나가게 해서 보냈다. 그로부터
 selei niyalma be jafa seci, ere minde arki buhe bihe seme tucibufi
 강철의 사람 더러 잡아라 하니 이 나에게 술 주었다 하고 나가게 해서
 unggihe. tereci tere hehe boode isinjifi dosifi tuwaci. han eiten
 보냈다. 그로부터 그 여자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서 보니. han은 모든
 hacin i miyamime tehebi. ishunde tebeliyeme acaha. tereci jirgame
 종류 로 화장하고 앉아있다. 서로 껴안고 만났다. 그로부터 편히
 banjija sere jakade elhe yabungga
 지냈다 할 적에 elhe yabungga
 han, tere hehe ambula urgunjehe dere sehe manggi. enduri hendume,
 han 그 여자 매우 좋아했으니라. 한 후 신 말하되
 kesi akū han i angga ci gisun tucike seme ukcafi genehe.
 운 없는 han 의 입 에서 말 나왔다 하고 풀고 갔다.

2.2 現代譯

2.2.1 여자가 심장을 가지고와 왕을 구한 이야기

그로부터 또 전처럼 가서 신을 짊어지고 올 때 신이 이야기하기를 어느 벌꿀
 많이 나는 곳에 경기연 아차부리(genggiyen acabure)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귀하고 좋은 아들 낳았다. 그 왕의 아버지가 죽은 후 아들은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했고 어떤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그는 처와 맞지 않아 다른 곳의 어떤
 사람의 아름다운 딸과 또 사통하였다. 그 왕이 죽었을 무렵 사통 한 딸은 임신

을 했고 출산 달이 가까워졌다.

왕이 죽은 뒤 그의 혼은 달빛이 되어 여자의 집에 가 대문을 두드렸다. 여자가 대문을 열고 등잔을 들고 보니 그녀와 사통했던 왕이 있었다. 여자는 너무 기뻐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왕은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갔다. 집 가까이 다다르자 북 치고 태평소 부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가 물었다. “무슨 음악입니까?” 왕이 말하길 “당신은 모르고 있었군. 나는 죽었소. 이는 나의 제사 지내는 소리요. 이렇듯 당신은 임신한 여자이니 코끼리우리에서 아이를 낳은 다음 나의 어머니에게 주고 분명히 얘기하도록 하시오. 나의 어머니와 처는 어떤 보물을 잃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소. 그 보물은 내 침대 아래 묻혀 있소. 그것을 꺼내 나의 아내에게 주어 그녀를 시집보내고 우리 어머니와 당신 두 사람이 아이를 길러 나의 지위를 계승하게 하시오”라고 하고 바람이 되어갔다. 그 여자는 너무 슬퍼 기절해 쓰러졌다.

깨어난 후 심하게 울고 나서는 코끼리우리에 가서 그날 밤 한 남자 아이를 낳았다. 다음날 새벽 코끼리 지키는 사람이 보고서 말하길 “얼마나 슬프겠느냐 마는 뭐하는 사람이기에 이곳에 와서 출산했느냐? 코끼리 우리가 더러워 지지 않았느냐!” 이 여자가 말하길 “방해하지 말고, 너는 가서 왕의 어머니를 이곳으로 오게 하라!” 하며 이상한 말을 했다. 그 사람이 가서 왕의 어머니에게 전하니 부인이 바로 왔다. 이 여자가 이유를 분명히 전하니 왕의 어머니는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특별하다고 여겨 집에 데리고 가 사랑으로 키웠다.

그 여자는 왕이 묻은 보물을 얻어 잘 지키고 있다가 그 보물을 왕의 처에게 주어 시집보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와 여자는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 왕의 혼은 매월 15일 밤 그 여자와 함께 날이 밝을 때까지 갔다. 여자가 그것을 왕의 어머니에게 전하니 왕의 어머니가 말하길 “정말 그렇다면 네가 어떤 것이든 증거를 잡아 남겨두어 보아라.” 그런 다음 어느 날 밤이 되어 증거를 잡아 왕의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왕의 어머니가 말하길, “지금 네가 우리 묘자를 만나게 해 보아라.”

그 여자는 15일 밤 왕의 혼이 온 다음에 왕에게 말하길, “매월 15일 밤 한번

오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 제 마음은 괴롭습니다.” 왕이 말하길 “당신이 마음만 강하게 갖는다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소. 당신에게 강한 마음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것이오.” 여자가 말하길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저는 알겠습니다. 이 몸이 왕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육신이 쇠진하고, 뼈가 부서진다 해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왕이 말하길 “다음달 15일 밤 달이 뜰 때 동쪽으로 가서 한쪽 끝에 도착하면 어떤 몸이 강철로 된 늑은이가, 쇠물을 마시며 목마르다 할 것이오. 그에게 술한 주전자를 주도록 하오. 그로부터 저쪽으로 가면 숫양 두 마리가 서로 싸울 것이오. 그들에겐 떡을 하나씩 주시오. 그로부터 저쪽으로 가면 여러 명의 무기를 잡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오. 그들에게 각각 고기 조각을 주도록 하오. 그로부터 저리 가면 어떤 무서운 괴를 뺏는 어두운 방이 있을 것이오. 그 안에는 강철 무기를 잡은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대문에는 두 귀신의 땅아 놓은 머리에 피가 묻어 있을 것이오. 그들 각각에게 핏덩이를 주도록 하오. 그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가서 여덟 명의 경 외는 사람의 주변에 앉도록 하오. 그들 곁에는 아홉 개의 사람의 심장이 있을 것이오. 그 중 여덟 개의 오래된 심장은 ‘나를 가져가라’고 할 것이고, 한 개의 새 심장은 ‘나는 가져가면 안 된다.’ 라 할 것이오. 당신이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새 심장을 가지고 돌아보지 말고 도망 오면 이 세상 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소.”

그 여인은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가 15일 밤 달이 뜨자마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동쪽으로 가서 곳곳에 나눠주고 도착한 다음 그 새 심장을 왕에게 가지고 가는 것을 잊지 않고 도망쳤다. 다라니경 옯는 사람이 쫓아와 ‘심장을 훔쳐 가져간다.’고 하였다. 문지기에게 잡으라고 하니 문지기가 “(이 여자는)우리들에게 피를 주었다.” 하고는 나가게 했고 그 다음 여러 무기를 잡은 사람에게 잡으라고 하니 “이 여자는 우리들에게 고기를 주었다.” 하고 밖으로 보냈다. 그 다음 두 수컷 양에게 “여자를 잡아라.”하니 “이 여자는 우리에게 떡을 주었다.” 하며 밖으로 내보냈다. 그 다음 강철 몸의 사람에게 잡으라고 하니 “이 여자는 나에게 술을 주었다.”하고 밖으로 내보냈다.

그로부터 그 여자가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 임금은 갖가지 화장을 하고 앉아있었다. 둘은 만나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나서 편히 살았다고 할 적에 얼허 야붕가 (elhe yabungga) 왕은 “이 여자가 많이 좋아 했을 것 같다.”고 말하니 신 말하길 “운 없는 왕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하고 주머니를 풀고 갔다.

< 參考文獻 >

- 胡增益, 《新滿漢大辭典》, 中國: 新疆人民出版社, 1994.
- 福田昆地編, 《補訂滿洲語文語辭典》, 2008.
- 河內良弘, 《滿洲語文語文典》, 日本: 京都大學出版社, 1996.
- 羽田亨, 《滿和辭典》, 日本: 京都帝國大學滿蒙調查會, 彙文堂書店, 1937.
- 季永海, 《尸語故事- 滿族佛教故事21篇》, 中國: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2.
- Nagarjuna著, 李朝群譯, 《尸語故事》, 中國: 西藏人民出版社版, 1983.
- 李成文, 多吉才郎譯, 《巴拉根倉的故事》(dpallha kun bzang gi gtam rgyud), 西寧, 青海民族出版社, 1982年.
- 劉守華, <藏傳佛教與《尸語故事》>, 《西藏民俗》, 1998.
- 藏族·李連榮, <諾日尖措: 簡論安多口承《尸語故事》>, 《民族文學研究》, 2007.
- 陳崗龍, <<尸語故事>: 東亞民間故事的一大原型>, 《西北民族研究》, 1995.
- 陳崗龍·色音, <蒙藏《尸語故事》比較研究>, 《民族文學研究》, 1994.1.
- 陳崗龍, <<尸語故事>研究概況>, 《西北民族研究》, 1993.1.
- 季永海, <<尸語故事>在滿族中的流傳>, 《民族文學研究》, 1993.4.
- 寧世群, <<尸語故事>雜論>, 《西藏研究》, 1989.2.
- 熊坤新, <試析《尸語故事》中的倫理思想>, 《西藏民族學院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88.
- 楊艷梅, <東北民間故事特征淺論>, 《吉林師範大學報 人文社會科學版》, 2004.4.
- 蘇韶芬, <談談民間故事的分類>, 《社會科學家》, 1989.4.
- 趙永銑, <蒙古族民間故事的搜集出版和研究>, 《蒙古學信息》, 1998.1.
- 鳥力吉巴雅爾·西脇隆夫譯, <《シッディ・クール》と《屍語故事》> (上), 《名古屋學院大學論集 人文·自然科學篇》, 第45卷 第1号, 2008年.
- 김우조 외, 《아시아 아프리카문학》,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3년 2월.
- 최원우 편역, 《만족의 무속과 무가 I》, 서울: 박이정, 2000년.

朴恩用, 《滿洲語文語研究》, 서울: 형설출판사, 1973년.

< 中文提要 >

《屍語故事》又名《魔屍故事》、《說不完的故事》。它是來源於印度《vetāla-pañca-vinśati》的連串民間故事, 廣泛流傳於中國西藏、和蒙古地區。《屍語故事》藏語叫做《若鍾》, 蒙語叫做《喜地乎爾》。《屍語故事》深受藏蒙人民的喜愛, 在藏族和蒙古族文學史上占有一定地位, 早在1930、40年代, 日本學者就指出, 《屍語故事》有滿文譯本。但是, 人們並沒有看到滿文本, 前幾年才在北京故宮博物院圖書館和北京圖書館發現了《屍語故事》的滿文譯本。

滿文本《滿族佛傳故事二十一篇》的發現, 不僅是研究印度《僵屍鬼故事》在世界各地特別是在中國的流傳研究的基本資料, 而且也對研究滿族文化與佛教文化的關係, 以及佛教文化對滿族文化的影響等方面, 有極高的參考價值。同時, 由於以滿文流傳下來的文學作品和民間故事極為罕見。

關鍵詞: 滿族佛傳故事21篇、滿文、尸語故事、傳寫、對譯、民間故事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7. 15.	2012. 8. 6.	2012. 8. 16.	2012. 8. 21.	2012. 8. 31.